

연구논문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프로파일이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유형에 미치는 영향: 잠재전이분석을 적용하여

The Effects of the Profiles of Foreign Parents' Cultural Adaptation
on the Classes in the Growth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ultural
Adaptation Stress: Applying Latent Transition Analysis

김소영^{a)} · 홍세희^{b)}

Soyoung Kim · Sehee Hong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의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다문화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성장잠재계층을 분류하여, 두 잠재계층 간의 전이비율을 살펴보고, 각각의 잠재계층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측변수가 있는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은 각각 '정착국 수용 집단', '원문화 정체성 집단', 그리고 '부적응 집단'의 3개의 잠재프로파일로 나누어졌다. 다문화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유형은 '고수준 집단', '증가집단', '감소집단', 그리고 '저수준 집단'의 4개 성장잠재계층으로 나누어졌다. 외국인 학부모가 정착국 수용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학부모의 나이가 적을수록 그 자녀가 스트레스 고수준 집단이나 감소집단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학부모의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일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 자녀가 스트레스 감소집단으로 전이되었다. 높은 자아존중감과 한국어능력은 외국인 학부모와 다문화 청소년 모두에게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은 이차원적 이론과 일차원적 이론 모두 적용하여 설명이

* 이 연구는 2019학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olleg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Grant in 2019).

a)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연구교수.

b)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홍세희.

E-mail: seeehong@korea.ac.kr

가능했으며,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예상되는 학생에게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할 수 있었다.

주제어: 다문화 청소년, 문화적응유형, 문화적응 스트레스, 잠재전이분석, 3-단계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 to classify latent profiles of foreign parents' cultural adaptation, (b) to classify latent classes in the growth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cultural adaptation stress, (c) to investigate the latent transition rates between the latent profiles and classes, (d) to explore the determinants of latent profiles and classes, and (e) to examine covariates of latent transition. For these purposes, latent transition analysis and multinomial logit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showed that the cultural adaptation types of foreign paren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latent profiles: 'accepting new culture group', 'original cultural identity group', and 'maladaptation group'. The latent classes of the change in cultural adaptive str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were categorized into four latent classes: 'high level group', 'increasing group', 'decreasing group', and 'low level group'. For younger parents who belong to the assimilation/integration group, their children tended to transit to the high-level stress group or the decreasing stress group. And, as the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was longer and the level of daily stress was lower, their children tended to transit to the increasing group. High self-esteem and fluency in Korean were protective factors for both foreign parents and multicultural adolescents. This study revealed that cultural adaptation types can be explained by both one-dimensional and two-dimensional theories. Finally,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policy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should be selectively applied to students who are at the potential risk of stress.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 cultural adaptation type, cultural adaptation stress, latent transition analysis, 3-step

I. 서론

다양한 문화 속에 사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세계화의 가속화와 함께 한국사회에서도 최근 외국인 거주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80년대부터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90년대부터는 국내 인구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한국의 농촌지역 남성과 혼인하는 이주여성이 크게 늘었다(문경희 2006).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15년 기준으로 총 인구 대비 3.4%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2006년에 대비하여 3배 이상 증가하였다(행정자치부 2016. 11). 외국인 이주가 늘어남에 따라 그들의 자녀들도 증가하게 되었는데, 2014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정의 미취학 아동은 약 12만 명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2015.3). 인구 대비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초등·중학교에 진입하는 학령인구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현장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차원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문화뿐만 아니라 외국인 부모의 문화적 배경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자로서 한국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문화적응은 한 개인이 그동안 속해 있던 문화와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경험하는 변화를 총칭하며(Williams & Berry 1991), 다문화가정 구성원은 문화적응의 과정을 피할 수 없다. 특히 한국사회는 '단일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백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자는 차별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존재한다(노경란·방희정 2009). 한국에 이주해 온 여성의 상당수가 베트남, 필리핀 출신임을 고려할 때, 한국의 사회적 편견이 이들의 긍정적인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심우엽(2009)에 의하면 다문화 학생은 일반 학생보다 따돌림을 더 많이 당하며,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 적응과정에서 주로 소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선웅·우현정 2012).

가정은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체계이며(Bronfenbrenner 1994),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은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관측되기 어려운 독특한 변인이므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부모의 문화적응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학부모의 경우, 한국에 오기 전에 자신이 학창시절을 보냈던

4 조사연구

경험이나 가치관이 한국 학부모들의 가치관과 달라 혼란을 겪으며, 특히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외국인 학부모가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오만석 2011).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이주 초기에는 주변 분위기로 인해 한국문화에 동화되기를 강요받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자녀들에게도 모국문화에 대한 전수를 하게 된다(박찬옥·이은경 2011). 외국인 학부모는 학령기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와 대화할 때 표현하고 싶은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에 한계가 있거나, 맞춤법이 정확하지 않아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한다(오혜정 2015).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담론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문화적응과 관련한 연구들이 증가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기존연구들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문화적응유형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Berry(1997)의 이차원적 이론을 적용하여 4가지 문화적응유형을 설정해 놓고, 연구대상이 각 유형 중 하나에 속하도록 분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김현실 2012; 이현주·강현아 2011; 임은미·정성진·이수진 2010). 이러한 방법들은 변수 중심적(variable-centered) 방법으로, 변수가 4개로 나누어지는 것과 실제로 연구대상의 응답반응 패턴에 따른 하위집단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나뉘는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적(person-centered) 방법(Bergman & Magnusson 1997)을 적용하여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여러 개의 집단으로 나뉜다고 가정하여 기존연구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취할 것이다. 변수 중심적 방법은 연구대상이 동질하며 각기 다른 변수특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반면, 사람 중심적 방법에서는 연구대상이 동질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누어지며 분류된 각각의 집단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는 데 주목적이 있다.

둘째, 문화적응의 과정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세대를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한 세대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박찬옥·이은경 2011; 안준희·조정희 2011; 이지영·이주연 2012; 최혜지 2012).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들도 대부분은 횡단연구이다(김은경·김종남 2016; 김희경 2010; 이상균·박현선·노연희·이채원 2012; 이지영 2016; 이현주·강현아 2011; 임은미 외 2010; 최윤미·임성택 2012; 최혜지 2009). 학령기에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겪는 급격한 발달과정과 함께 문화적응 스트레스까지 경험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가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발달변화의 양상에 따라 하위집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에 대한 영향변수를 검증하면 각 집단별 특성에 부합하는 선택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는 지원비용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정책기획이 가능해질 것이다.

위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접근의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부모의 문화적응유형이 그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변화 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각 잠재계층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다문화 가정에서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잠재계층(프로파일)은 몇 개로 나누어지며 각 프로파일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 연구문제 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유형은 몇 개로 나누어지며 각 성장 잠재계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나타내는가?
- 연구문제 3.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잠재프로파일과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성장잠재계층 사이에 잠재전이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 연구문제 4.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잠재프로파일과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성장잠재계층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연구문제 5.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잠재프로파일과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성장잠재계층의 잠재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적응유형

문화적응은 문화적으로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이주민이 정착하고자 하는 문화와 접촉하면서 생기는 현상을 총칭하며(Redfield, Linton & Herskovits 1936), 넓게는 집단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나 관습의 변화이고, 좁게는 개인 수준의 사고나 행동변

화를 일으키는 심리적 과정을 말한다(Berry 2005). 기존에 유지해 왔던 문화와 다른 생활양식을 경험하고 이러한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개인의 능동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박종철·김영윤·이우영 1996).

이주민의 문화적응을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은 크게 일차원적 이론과 이차원적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일차원적 이론은 문화적응이 이주민의 모국에 대한 몰입에서 시작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문화에 대한 몰입으로 끝나는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Sam 2006). 일차원 이론에서는 이주민의 문화적응이 진행되어 갈수록 모국문화에서 갖고 있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주자가 경험하는 갈등의 정도와 문화적응의 질적 결과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원문화가 새로운 문화로 대체되는 양상만 관측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었고(Berry 1997), 일차원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하고자 이차원 이론이 제기되었다.

이차원 이론은 기존에 속해 있던 문화를 유지하려는 정도와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정도의 두 개의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Cuellar, Arnold, & Maldonado 1995). 두 축의 이름은 학자에 따라 ‘문화 유지’와 ‘접촉과 참여’(Berry, 1997), 혹은 ‘부정적 문화 소멸’과 ‘주 사회에 동화’(Marin & Gamba 1996)등 용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크게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자 하는 방향성의 두 측면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다.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점차 소멸되고 그 빈자리가 새로운 문화의 정체성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습득하면서도 원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차원 이론과는 차별화된다.

이렇게 독립된 두 축을 기준으로 4개의 사분면을 나눌 수 있는데, 이 4개 유형을 각각 동화, 통합, 분리, 그리고 주변화 유형이라고 하며, 문화적응 유형이 나누어지는 것은 새로운 문화가 이주민이 스스로 문화적응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Berry 1997). 먼저 동화는 원문화 정체성은 사라지고 새로운 문화의 정체성만을 채택하는 유형이다. 통합은 원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문화의 정체성도 함께 갖는 특징이 있으며 이중문화(bicultural) 정체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분리는 원문화 정체성만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는 거부하는 유형이다. 주변화는 정체성이 상실된 상태로 새로운 문화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문화 유지도 하지 못하는 유형이다.

2.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은 어떤 문화에 적응하는지와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개인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스트레스 과정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원인이 개인의 심리적·육체적 건강에 해를 미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며, 원인, 중재, 그리고 결과의 세 단계를 거친다(Pearlin, Menaghan, Lieberman, & Mullan 1981). 문화적응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도 큰 틀에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이주민이 새로운 문화에서 겪는 갈등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유발하게 되는데(Berry 2000), 문화적응과정의 부적응적 결과를 완화시키는 중재요인 및 대처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즉 개인이 처한 상황과 각기 다른 대응자원을 갖고 있으므로 같은 스트레스 원인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해악은 다를 수 있다. 문화적응유형 중 분리 유형과 주변화 유형은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이고, 통합 유형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다(Flannery, Reise & Yu 2001).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부적응적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증상으로 나타난다(Miranda & Matheny 2000). 첫째, 적응장애와 비슷한 증상으로 심리적 불편감과 심리적·사회적 기능의 저하를 수반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우울, 무가치감, 짜증, 생산성 저하와 낮은 자존감 등으로 나타난다. 둘째, 정착하려는 문화에서의 이질감과 차별감에 대한 것으로 기존에 익숙했던 문화와의 차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거부당하는 느낌이나 혐오감을 수반하며, 나아가 소속감을 갖기 어려운 느낌을 갖는다. 세 번째로 모국문화를 그리워하는 증상으로 상실감과 향수병이 특징이다(Tartakovsky 2007). Sandhu & Asrabadi(1994)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문화적응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의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 정서유형이나 행동변화로 정의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Acculturative Stress Scale: ASS)를 개발하였다. ASS의 하위 구인으로는 두려움, 적대감, 차별감, 향수병 등의 7가지 구인으로 되어 있다.

3. 문화적응과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분류에 영향을 주는 변인과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변인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외국인 학부모

의 문화적응유형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으로는 연령,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 부모역할 효능감, 거주기간, 그리고 가계소득을 설정하였고,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의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다문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수혜 여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한국어능력,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설정하였다. 문화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주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한인영 2001), 언어적인 곤란함과 재정적 자원의 부족, 그리고 차별감은 이주민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원인이다(Hovey & Magna 2000). 이주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이주문화를 빠르게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m & Berry 1995).

거주기간은 기간이 오래될수록 문화적응 불편감의 수준이 낮아진다(Berry 1976). 가계소득에 대한 것은 소득수준이 높으면 낮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나타낸다는 연구가 있었으며(정명희 2011), 권복순·차보현(2006)에서는 월 평균 150~200만원인 범위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습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높은 언어 유창성은 동화 유형 및 통합 유형과 관련이 있다(Berry, Phinney, Sam, & Vedder 2006). 유자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자아존중감은 양육태도에 긍정적 역할을 하여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높인다고 하였다(김민경·김정은 2009). 외국인 학부모가 겪는 스트레스 원인 중 하나는 자신이 자란 환경과 이주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환경의 차이이다. 외국인 학부모는 이주자로서의 적응과 더불어 부모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데,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역할 효능감에 따라 문화적응유형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의 2차~6차년도 자료이다. 다문화청소년 패널 조사는 현재 급증하는 외국인근로자 자녀와 중도에 입국한

청소년들의 추세를 반영하여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목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1년부터 실시된 장기추적 조사자료이다. 자료구축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가 주요 대상이 되었고, 연구대상의 대부분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고, 한 가구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부모자료와 연결되어 있는 자녀 중 한 명을 임의표집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 중에서 연도별 조사에 3회 이상 참여한 학생을 기준으로 1,305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2. 분석변인

1)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본 연구에서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검사는 Berry(2001)의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EAAM는 미국으로 이주해온 동아시아지역 출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존문화에 대한 유지 정도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수용 정도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지는 4가지 문화적응유형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노하나(2007)에서 한국으로 이주해온 국제결혼 여성에 맞게 타당화하였다. 척도는 동화, 통합, 분리, 그리고 주변화의 4가지 문화적응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화 8개, 통합 5개, 분리 6개, 그리고 주변화 9개의 총 28 문항으로 되어 있고,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외국인 학부모의 한국 거주기간 평균이 10년 이상이고 문화적응유형은 시간에 따라 안정적임을 가정하여,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에 대한 자료가 처음으로 수집된 2012년부터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2015년까지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신뢰도(Cronbach's alpha) 계수는 각각 0.66, 0.74, 0.72, 그리고 0.69로 나타났다.

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는 검사는 Sandhu & Asrabadi (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ASS)로,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지각된

적대감, 문화적 충격,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기타(고립감 및 불신감)의 7개 하위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청소년 설문지에서 사용된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항은 ASS의 하위구인들 중 청소년에게 적용이 가능한 지각된 차별감, 지각된 적대감, 두려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을 어느 정도 받는지를 묻는 10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alpha) 계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로 각각 0.78, 0.78, 0.74, 0.76, 그리고 0.76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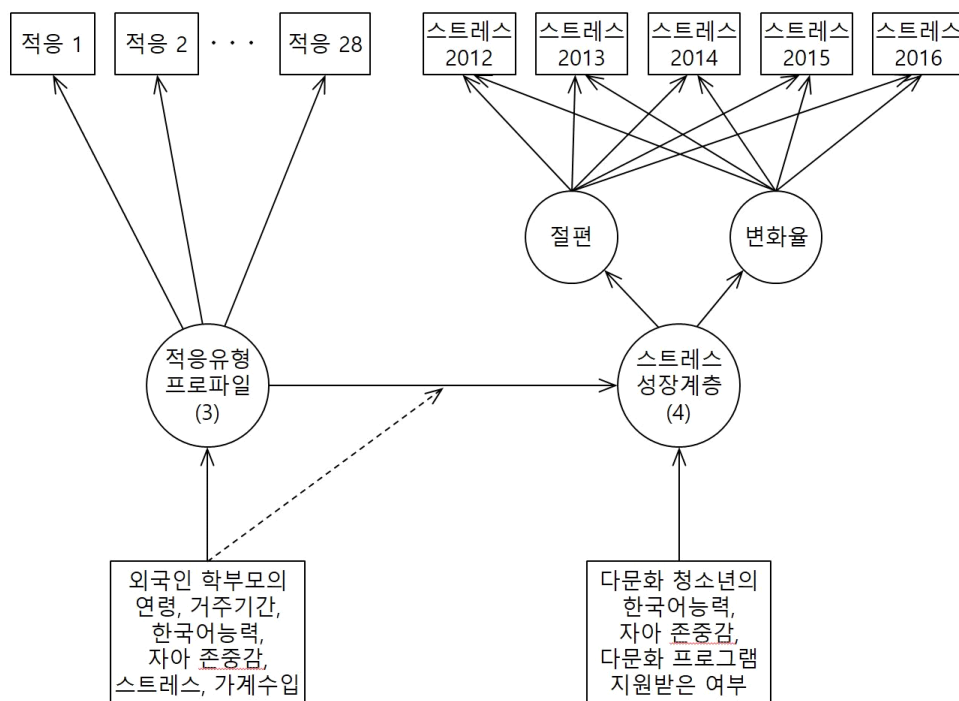
3) 잠재계층에 영향을 주는 변인

위 변인들 중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는 2012년 조사 당시 외국인 학부모와 다문화 청소년의 연령, 한국어 능력, 자아 존중감, 거주기간, 부모역할 효능감, 가계수입, 다문화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수혜 여부를 사용하였다. 학부모의 거주기간은 몇 년 몇 개월인지 묻는 문항으로, 개월 단위의 정보는 연 단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어 능력은 스스로 자신의 한국어 능력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전혀 못함’부터 ‘매우 잘함’의 4점 척도로 응답하는 자기보고식 문항이며, 분석에는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의 4개 영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가계수입은 월평균 소득을 만원 단위로 기입하도록 한 것이고, 다문화청소년의 성별은 여학생을 0으로, 남학생을 1로 코딩하였다.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 여러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변인은 외국인 학부모의 자아존중감,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그리고 외국인 학부모의 부모역할 효능감이다. 외국인 학부모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에서 한 문항을 제외한 9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묻는 4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성인용 자아존중감 척도에 비해 질문의 길이가 짧고 응답범주도 4점 척도로 간략하다. 부모역할 효능감의 경우 Johnston & Mash(1989)의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PSE) 척도에서 효능감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나는 내가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등의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에 답하도록 되어 있다. 학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그리고 자녀의 자아 존중감의 각 구인별 신뢰도(Cronbach’s alpha) 계수는 각각 0.80, 0.88 그리고 0.79이었다.

3. 분석모형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잠재프로파일과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성장잠재계층을 분류하고 두 잠재계층 사이의 집단 바뀔을 살펴보기 위하여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을 적용하였다. 잠재 전이분석은 두 개 이상의 잠재계층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하는데 유용하며(Muthen & Muthen 1998-2015), 관측변인들의 응답패턴에 따라 하위집단을 분류하는 혼합모형을 확장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모형은 전이되기 전은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이고 전이 후는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CGA)으로, 전이 전과 후에 서로 다른 목적의 측정변수를 갖는 새로운 모형이다(Nylund-Gibson et al. 2014). 최종적인 모형은 잠재전이모형과 함께 독립변수를 포함한 모형이며, 각 잠재계층분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분석과 잠재변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즉, 상호작용)를 검증하였다. 전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분석 프로그램은 Mplus 7을 사용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오차 생략)

본 연구에서는 위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3단계 방법(3-step method)을 적용하였다. 3단계 방법은 공변인의 조합에 따라 잠재계층의 분류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안된 방법으로(Vermunt 2010), 기존에 1단계로 분석할 때 나타나는 집단번호 바뀔(label switching)이나 분류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Asparouhov & Muthen 2013). 아직 잠재전이모형에서는 3단계 방법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3단계 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Nylund-Gibson et al. 2014). 첫째, 잠재계층모형에서 집단의 수를 결정하고 최대 확률 계층(the most likely class variable)을 추출한다. 둘째, 각 잠재계층에 속할 확률과 각 집단에 속하는 사람의 빈도로 각 집단의 포함확률을 구하고, 참조집단에 비해 타 집단에 속할 확률을 로짓으로 변환하여 각 잠재계층마다 조건부 포함확률 로짓을 고정한다. 셋째, 앞서 추출한 최대 확률 계층을 명목변수로 설정하고 공변인을 포함하여 <그림 1>과 같은 최종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각 연도별로 5개 시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에 대한 문항은 연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고 2012년부터 2015년 자료의 각 문항에서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기술통계 확인 결과, 왜도와 첨도가 크게 벗어나는 변수는 없었다. 분산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100배 이상 차이 나거나 단위 차이가 큰 경우에는 척도의 단위를 비슷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Kline 2015) 변수를 변환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가구소득은 자연로그로 변환하였고 연령은 10으로 나누었으며 거주기간은 5로 나누어 분석에 포함하였다.

〈표 1〉 기술통계

변수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외국인학부모 문화적응유형				
문항 1	1.00	5.00	2.54	1.04
문항 2	1.00	5.00	4.04	0.86
문항 3	1.00	5.00	2.64	1.10
문항 4	1.00	5.00	3.13	0.95
문항 5	1.00	5.00	2.98	0.84
문항 6	1.00	5.00	2.89	0.91
문항 7	1.00	5.00	2.96	0.87
문항 8	1.00	5.00	3.32	1.02
문항 9	1.00	5.00	2.98	0.95
문항 10	1.00	5.00	3.46	0.89
문항 11	1.00	5.00	3.63	0.86
문항 12	1.00	5.00	3.62	0.74
문항 13	1.00	5.00	3.60	0.77
문항 14	1.00	5.00	2.35	0.94
문항 15	1.00	5.00	3.38	1.03
문항 16	1.00	5.00	3.17	0.99
문항 17	1.00	5.00	3.20	0.88
문항 18	1.00	5.00	3.28	0.91
문항 19	1.00	5.00	2.25	0.99
문항 20	1.00	5.00	2.10	0.90
문항 21	1.00	5.00	1.90	0.86
문항 22	1.00	5.00	2.08	0.92
문항 23	1.00	5.00	2.26	1.01
문항 24	1.00	5.00	2.25	0.99
문항 25	1.00	5.00	1.91	0.81
문항 26	1.00	5.00	2.18	0.89
문항 27	1.00	5.00	2.18	0.90
문항 28	1.00	5.00	2.07	0.86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2012 년	1.00	3.70	1.45	0.37
2013 년	1.00	3.30	1.46	0.37
2014 년	1.00	2.90	1.40	0.32
2015 년	1.00	3.00	1.44	0.34
2016 년	1.00	4.00	1.42	0.32

독립변수				
학부모 변수				
나이	22.00	61.00	41.45	5.15
한국어능력	1.00	4.00	3.03	0.55
자아 존중감	2.11	5.00	3.89	0.51
거주기간	1.25	38.33	13.46	3.38
일상 스트레스	1.00	4.00	1.80	0.40
가계소득(만원/월)	0.00	800.00	215.05	101.19
학생 변수				
지원/수혜여부	0.00	1.00	0.70	0.46
한국어능력	1.50	4.00	3.63	0.50
자아 존중감	1.00	4.00	3.17	0.54

2. 잠재계층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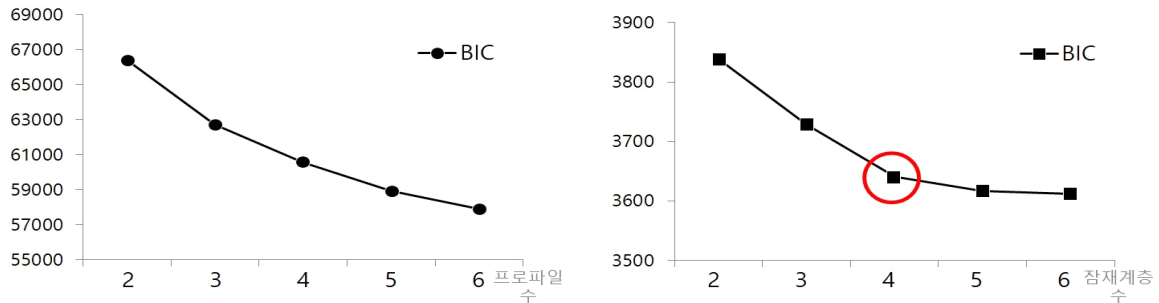
잠재계층 분류를 위하여 각 잠재계층 수에 따른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Schwartz 1978), LMR 우도비검정(LMRLRT: Lo, Mendell, & Rubin 2001), 그리고 Bootstrap 우도비 검정(BLRT: McLachlan & Peel 2000)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된 각 계층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BIC 지수의 경우, 모형이 복잡해질수록 적합도가 좋아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표본 자료에서 흔히 나타나므로(Jedidi et al. 1997), 요인분석에서 스크리 도표를 보고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 같이 계층 수에 따른 BIC 변화 폭이 작아지는 부분을 참고하였다. BIC 지수뿐만 아니라 LMRLRT와 BLRT 및 분류된 각 계층의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였다(Nylund-Gibson et al. 2014).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잠재프로파일의 경우, 프로파일 수 가 증가함에 따라 BIC 적합도가 점진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BIC만으로는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어렵다(표 2 좌측). LMRLRT 결과에 따르면, 프로파일의 수가 4개일 때보다 3개일 때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BLRT는 모든 잠재계층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각 계층의 비율과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잠재프로파일의 수는 3개인 것으로 결정하였다.

〈표 2〉 잠재계층 수 결정을 위한 적합도 통계량과 각 잠재계층의 비율

잠재 계층 수	Log Likelihood	BIC	LMRLRT p-value	BLRT p-value	각 계층의 비율(%)						
외국인 학부모 문화적응유형 LPA											
2	-32900.56	66410.91	<.001	<.001	40	60					
3	-30947.94	62713.71	<.001	<.001	22	46	32				
4	-29775.79	60577.46	0.50	<.001	15	19	39	27			
5	-28858.75	58951.42	0.32	<.001	19	15	34	18	14		
6	-28226.67	57895.31	0.22	<.001	15	13	12	36	12	12	
다문화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 LCGA											
2	-1883.94	3839.62	<.001	<.001	17	83					
3	-1817.55	3728.36	0.14	<.001	81	7	12				
4	-1762.90	3640.58	0.15	<.001	9	4	76	11			
5	-1740.28	3616.86	0.00	<.001	10	4	76	10	0		
6	-1726.85	3611.53	0.38	<.001	10	73	5	0.2	5	8	

LPA: latent profile analysis, LCGA: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LMRLRT: Lo-Mendel-Rubin likelihood ratio test, BLRT: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성장잠재계층의 경우, <그림 2> 오른쪽의 BIC 결과를 보면 성장잠재계층의 수가 4개일 때 값이 급격히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층의 수가 5개 이상이 되면 각 잠재계층의 비율이 1% 미만인 집단이 생기고 프로파일의 형태가 중복되는 집단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합통계량과 해석의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잠재계층의 수를 4개로 결정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결과는 선형(linear) 함수를 적용한 결과인데, 이차(quadratic) 함수를 적용하면 모형의 복잡성으로 인해 추정 실패가 잦고, 추정이 되더라도 이차항 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여, 최종적으로 선형모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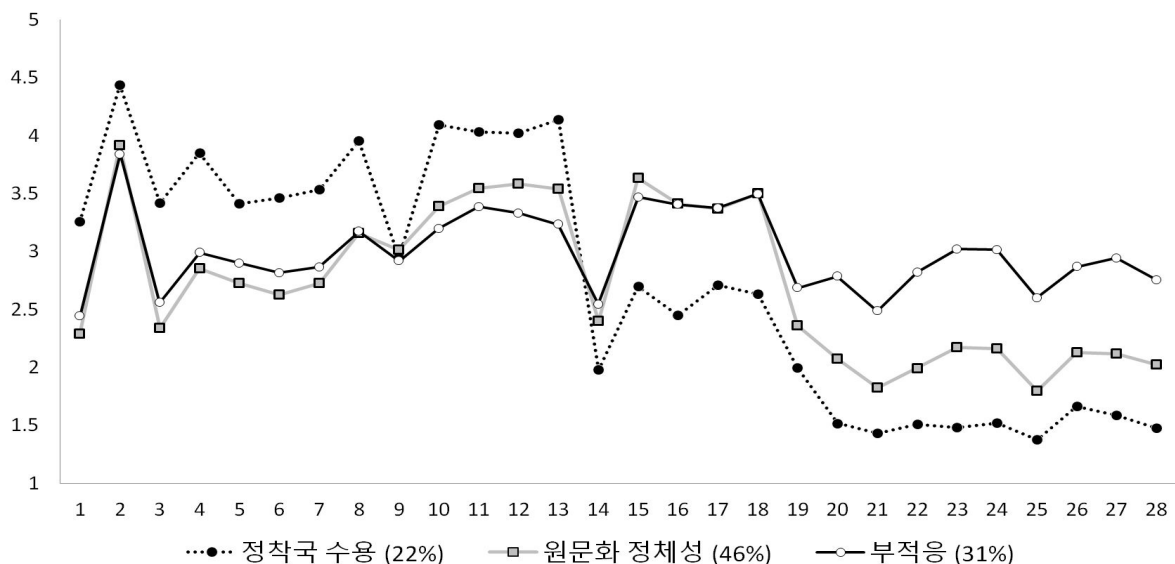


〈그림 2〉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BIC 적합도(좌)와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잠재성장 계층 수에 따른 BIC 적합도(우)

3. 분류된 잠재계층의 특성

1)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의 잠재프로파일 분석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분류된 3개의 프로파일은 각 집단의 특징을 고려하여, 정착국 수용 집단(22%), 원문화 정체성 집단(46%), 그리고 부적응 집단(31%)으로 이름을 붙였다. 28개의 문항 중에서 8번까지는 동화 적응유형, 13번까지는 통합 적응유형, 19번까지는 분리 적응유형, 28번까지는 주변화 적응유형에 대한 내용이며, 이 네 가지 하위구인은 정착하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문화수용 정도와 기존문화 유지 정도의 두 축으로 생기는 사분면 중 하나에 속하는 개념임을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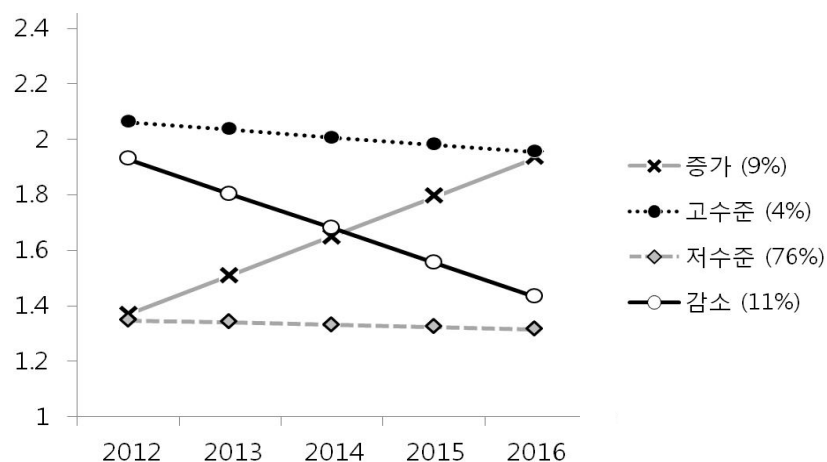


〈그림 3〉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의 각 잠재계층별 특성

먼저 정착국 수용 집단은 동화와 통합 적응유형을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이 사용하고, 분리 적응유형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적게 사용하며, 주변화 방식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서 한국의 생활양식을 받아들이며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들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원문화 정체성 집단은 출신국가의 정체성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높은 집단이다. 다른 집단에 비해 분리 적응유형을 특징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통합 적응유형도 분리 적응유형만큼 사용하고 있다. 이 집단의 동화 적응유형 점수는 최하위를 나타냈으며 주변화 유형도 낮은 편이었다. 세 번째로 부적응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주변화 적응유형과 분리 적응유형이 높게 나타나고 동화나 통합 적응유형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성장잠재계층 분류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분류된 4개의 잠재계층은 고수준 집단(4%), 증가 집단(9%), 감소 집단(11%), 그리고 저수준 집단(76%)으로 이름을 붙였다. 우선, ‘고수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유지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트레스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증가’ 집단은 초기에는 스트레스 수준이 최저 수준이었다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감소’ 집단은 초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었다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저수준’ 집단은 가장 빈번한 경우로, 낮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



<그림 4>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 유형

4. 두 잠재계층 간의 전이(transition)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프로파일을 예측변인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유형을 결과변인으로 간주하고 집단이 전이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외국인 학부모 문화적응유형의 각 잠재프로파일이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성장잠재계층으로 전이될 때, 전이된 비율이 전이의 종착점인 성장잠재계층의 분류비율보다 큰 경우를 두드러진 전이로 간주했다. 예를 들어, 학부모 프로파일 중 ‘부적응’ 집단에서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 잠재계층 중 ‘저수준’ 집단으로 전이되는 비율이 61%인데, 원래 저수준 집단의 비율이 76%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그리 많이 전이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전이가 두드러지는 경우를 <표 3>에 굵은 글씨로 표시했다.

<표 3> 학부모의 문화적응 프로파일에서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유형으로 전이비율
(단위: %)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유형			
		고수준 집단 (4%)	증가 집단 (9%)	감소 집단 (11%)	저수준 집단 (76%)
외국인	정착국 수용 집단(22%)	0	8	5	87
학부모의	원문화 정체성 집단(46%)	3	10	9	78
문화적응					
프로파일	부적응 집단(31%)	9	11	19	61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 프로파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착국 수용’ 집단은 대다수가 ‘저수준’ 집단으로 전이되었다. 외국인 부모가 한국문화에 동화되고 통합적 문화적응을 하는 경우, 그 자녀세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은 대개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원문화 정체성’ 집단의 경우는 ‘저수준’ 집단으로의 전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증가’ 집단으로 전이되는 비율이 높았다. 외국인 부모가 한국에 적응할 때 분리와 통합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자녀세대는 대부분 낮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이지만 적응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경우도 꽤 있음을 뜻한다. 세 번째로 ‘부적응’ 집단의 경우는 여러 집단으로의 전이가 상대적으로

로 활발하였으며, ‘고수준 집단’, ‘증가 집단’, 그리고 ‘감소 집단’으로의 전이가 각각 9%, 11%, 그리고 19% 이었다. 외국인 부모가 타국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에 소외감을 느끼거나 모국 문화만 고수하려는 등 부적응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그 자녀세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초기에 높은 수준을 보이다 감소하는 경우가 되거나, 혹은 스트레스가 점차 증가하는 집단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다.

〈표 4〉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기준집단	비교집단	독립변수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외국인 학부모 부적응 집단	정착국 수용 집단	연령	-0.34	0.23	0.71
		거주기간	0.00	0.18	1.00
		스트레스	-0.66***	0.17	0.52
		한국어능력	1.81***	0.20	6.10
		자아 존중감	2.54***	0.26	12.62
		가계소득	0.05	0.18	1.05
	원문화 정체성 집단	연령	0.26	0.16	1.30
		거주기간	-0.33**	0.13	0.72
		스트레스	-0.48***	0.12	0.62
		한국어능력	0.29	0.16	1.34
		자아 존중감	1.58***	0.17	4.87
		가계소득	0.17	0.14	1.19
다문화청소년 저수준 집단	고수준 집단	한국어능력	-1.47***	0.38	0.23
		자아 존중감	-1.82***	0.35	0.16
		지원 프로그램	-0.64	0.42	0.53
	증가 집단	한국어능력	0.00	0.29	1.00
		자아 존중감	-0.14	0.23	0.87
		지원 프로그램	0.06	0.30	1.06
	감소 집단	한국어능력	-0.55*	0.27	0.58
		자아 존중감	-1.68***	0.30	0.19
		지원 프로그램	-0.09	0.32	0.91

* $p < .05$, ** $p < .01$, *** $p < .001$

5. 각 잠재계층 및 잠재전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 검증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잠재프로파일과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잠재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의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 프로파일 결과를 보면, 부모의 일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한국어능력이 우수할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적응’ 집단보다는 ‘정착국 수용’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외국인 학부모의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일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적응’ 집단보다는 ‘원문화 정체성’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성장잠재계층에 대한 결과를 보면, 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기준집단인 ‘저수준’ 집단보다는 ‘고수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저수준’ 집단에 비해 ‘증가’ 집단에 속할 확률이 어떻게 될는지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변인은 없었다. 학생이 스스로 한국어능력에 자신이 없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저수준’ 집단에 비해 ‘감소’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잠재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학부모 변인에 대한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잠재전이 분석은 전이되기 전과 후 모두 명목형 변수이기 때문에, 특정 잠재계층에서 특정 변수의 값에 따라 전이되는 계층이 달라진다는 개념이 상호작용 효과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표의 맨 왼쪽 열을 보면, 외국인 학부모 잠재프로파일 세 개를 각각 조건부로 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외국인 학부모의 잠재프로파일이 정착국 수용 집단일 경우, 자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고수준 집단에 속할지 저수준 집단에 속하게 될지에 학부모의 연령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즉, 정착국 수용집단에서는 학부모의 나이가 적을수록 자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저수준 집단보다는 고수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 외국인 학부모가 정착국 수용 집단일 경우, 자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감소 집단에 속할지 저수준집단에 속하게 될 지에 학부모의 연령과 거주기간, 그리고 일상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즉 학부모의 나이가 적을수록,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일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저수준 집단보다는 감소 집단에 속하게 될 확률이 높았다.

〈표 5〉 잠재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상호작용) 분석 결과

외국인 학부모 잠재 프로파일	다문화 청소년 성장잠재계층 비교집단	전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 (학부모 특성)	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정착국 수용 집단	고수준 집단	연령	-2.34**	0.77	0.10
		거주기간	0.45	0.31	1.58
		스트레스	-5.76	3.76	0.00
		한국어능력	-1.00	0.90	0.37
		자아 존중감	3.71	2.14	40.88
		가계소득	0.83	0.92	2.30
	증가 집단	연령	-0.7	0.78	0.47
		거주기간	0.50	0.55	1.65
		스트레스	-1.04	1.03	0.35
		한국어능력	-1.54	0.82	0.22
		자아 존중감	0.62	0.72	1.85
		가계소득	1.32	1.08	3.74
	감소 집단	연령	-2.03*	0.80	0.13
		거주기간	0.67*	0.33	1.95
		스트레스	-2.12*	0.82	0.12
		한국어능력	-0.60	0.70	0.55
		자아 존중감	-0.36	1.03	0.70
		가계소득	0.13	0.73	1.13
원문화 정체성 집단	고수준 집단	연령	0.16	0.79	1.17
		거주기간	-0.49	0.52	0.61
		스트레스	0.12	0.55	1.13
		한국어능력	-0.21	0.55	0.81
		자아 존중감	0.90	1.18	2.45
		가계소득	-0.01	0.46	0.99
	증가 집단	연령	0.65*	0.32	1.91
		거주기간	-0.46	0.26	0.63
		스트레스	0.47	0.28	1.61
		한국어능력	0.32	0.38	1.38
		자아 존중감	0.09	0.38	1.10
		가계소득	0.33	0.37	1.38
	감소 집단	연령	-0.29	0.44	0.75
		거주기간	0.45	0.52	1.56
		스트레스	0.72	0.41	2.05
		한국어능력	-0.43	0.59	0.65
		자아 존중감	0.12	0.50	1.13
		가계소득	0.16	0.36	1.17

부적응 집단	고수준 집단	연령	-0.62	0.43	0.54
		거주기간	0.48	0.49	1.61
		스트레스	-0.42	0.41	0.66
		한국어능력	0.04	0.62	1.04
		자아 존중감	-0.53	0.54	0.59
		가계소득	-1.02*	0.48	0.36
	증가 집단	연령	0.03	0.42	1.03
		거주기간	0.29	0.38	1.34
		스트레스	0.12	0.45	1.12
		한국어능력	0.13	0.43	1.14
		자아 존중감	0.03	0.71	1.03
		가계소득	0.68	0.68	1.98
	감소 집단	연령	-0.52	0.50	0.60
		거주기간	0.65	0.45	1.91
		스트레스	0.12	0.34	1.13
		한국어능력	-0.19	0.38	0.83
		자아 존중감	0.50	0.36	1.65
		가계소득	-0.55	0.30	0.58

주) 다문화 청소년 성장잠재계층의 기준집단은 저수준 집단임.

* $p < .05$, ** $p < .01$

외국인 학부모의 잠재프로파일이 원문화 정체성 집단일 경우에는, 학부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저수준 집단보다는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집단에 속하게 될 확률이 높았다. 외국인 학부모가 부적응 집단일 경우에는,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저수준을 유지하는 집단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유지하는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의 하위집단을 나누어 각 집단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그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 그 하위집단을 나누었다. 각각의 잠재계층(하위집단)을 분류한 후에는 분류된 잠재계층들 사이의 전이비율과 각 잠재계층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요약과 결론은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외국인 학부모는 여성이주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들의 문화적응유형은 3개의 잠재프로파일로 나누어졌다. 각 잠재프로파일의 이름은 ‘정착국 수용 집단’, ‘원문화 정체성 집단’, 그리고 ‘부적응 집단’으로 하였다. 이차원 이론에서 문화적응유형을 나누는 두 개의 차원이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정도와 예전 문화를 유지하는 정도라고 했을 때, 정착국 수용 집단의 프로파일 형태를 보면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문화 정체성 집단은 이주오기 전의 문화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동화 적응유형의 점수가 낮아, 새로운 문화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전 문화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부적응 집단은 다른 잠재계층에 비해 주변화 적응유형이 두드러지며, 분리 적응유형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화나 통합적 적응유형은 낮게 나타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이주여성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은 동화, 분리, 통합, 주변화로 이루어진 사분면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집단은 일차원적 이론의 양극단으로 표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문화적응 유형에 대하여 사람 중심적 접근으로 새롭게 알 수 있었던 점은 연구대상의 문화적응유형은 오로지 일차원으로, 혹은 오로지 이차원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각 하위집단의 특징에 따라 다른 일차원적 이론이 적용될 수도, 이차원적 이론이 적용될 수도 있었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시간에 따른 변화양상에 따라 4개 종류의 성장잠재계층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이렇게 나누어진 성장잠재계층의 이름은 각각 ‘고수준 집단’, ‘증가 집단’, ‘감소 집단’, 그리고 ‘저수준 집단’으로 하였다. 고수준 집단은 모든 시점에서 최고 수준의 스트레스 수치를 보였으나 미미한 차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증가 집단은 위험 집단으로도 볼 수 있는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5년 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보고하게 된다. 감소 집단은 초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나타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저수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시작해서 5년 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저수준 집단의 비율이 70%가 넘고 5년차 시점에서 저수준 집단과 감소 집단의 비율을 합치면 약 87%가 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다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나 스트레스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다문화 청소년은 적극적 개입이나 지원정책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증가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 10%와 고수준 감소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 6%에게 집중된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당국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증가를 대비하여 ‘다문화 중점 학교 150개교 지정’, ‘중도입국학생 예비학교 확대’, ‘맞춤형 한국어 교육 운영’ 을 비롯하여 다문화 학생의 한국문화적응을 돕는 정책을 강화하고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교육부 2015).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모든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단지 다문화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청소년들까지 지원하는 것은 ‘다문화 청소년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혹은 ‘다문화 청소년은 도와줘야 하는 대상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과 인력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증가 집단에 해당하는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에게 가족 상담이나 멘토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잠재프로파일과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성장잠재계층 사이의 전이(transition) 비율과 관련한 것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의 문화적응이 일차원적 문화적응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프로파일들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저수준 집단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았고, 학부모의 문화적응이 일차원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프로파일인 부적응 집단은 저수준 집단을 제외한 다양한 집단으로 전이가 되었다. 원문화 정체성 집단이나 부적응 집단과 같이 학부모 세대에서 분리 적응이 높게 나타나는 집단은 다음 세대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집단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었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문화적응유형 중 주변화 유형과 분리 유형일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임은미 외 2010), 이러한 경향이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 세대에까지 걸쳐서 나타남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인 학부모가 부적응 집단에 속하는 경우, 다음 세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잠재계층은 감소 집단, 증가 집단, 그리고 고수준 집단으로의 전이가 두드러졌다. 즉, 외국인 어머니가 문화적응에 있어서 뚜렷한 방향성 없이 정착해야 할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긍정적이지 않았다.

넷째, 분류된 각 잠재계층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학부모의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원문화 정체성 집단보다는 부적응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원문화 정체성 집단이나 정착국 수용집단 보다는 부적응 집단에 속하게 될 확률이 높았다. 외국인 학부모 스스로 자신의 한국어 능력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부적응 집단보다는 정착국 수용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적응 집단보다는 정착국 수용 집단이나 원문화 정체성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한국에 거주한 기간과 가계소득은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국에 오래 거주한다고 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연구(임은미 외 2010)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는 집단(부적응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한 부분을 보면, 학생 스스로가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할수록 고수준 집단이나 감소 집단보다는 저수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자아존중감도 마찬가지로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다른 성장잠재계층에 비해 스트레스 저수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저수준 집단은 5개년도 내내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높은 자아존중감과 한국어능력은 다문화 청소년이 겪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수혜 여부는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한국문화 적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높은 자아존중감과 한국어능력에 대한 자신감임을 나타낸다. 다문화 청소년 지원 정책을 설계할 때, 모든 대상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적응 스트레스를 보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섯째, 잠재전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상호작용과 같이 해석할 수 있으며, 다문화 청소년 성장잠재계층의 기준집단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저수준 집단임을 숙지하고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이 정착국 수용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적을수록 그 자녀가 스트레스 고수준 집단이나 감소 집단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었다. 외국인 여성 이주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자녀 세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 학부모가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일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의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집단으

로 전이됨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학부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원문화 정체성집단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 증가 집단으로 전이되었다.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부적응 집단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 고수준 집단으로 전이되었다. 이 연구에서 분류한 잠재계층에서 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 집단이 외국인 학부모 잠재프로파일에서는 부적응 집단이고, 다문화 청소년 성장잠재계층에서는 고수준 집단 및 증가 집단인데, 부적응 집단에서 고수준 집단으로 전이되는 것이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연구의 한계 및 연구제언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연구대상이 한정되어 있어서 다문화 한국인 모두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10살 정도 된 자녀가 있고 한국인 남편을 둔 외국인 출신 이주여성인 경우만 분석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이 대상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다문화 청소년이 증가하는 원인은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나 새터민(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이주민)의 이주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로 더욱 다양한 범위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문화적응과정에 대하여 더 자세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설문지 내용은 응답자가 여성인 경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예를 들어 시어머니에 관한 질문) 남성에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향후 조사에서 패널을 구축할 때 남성 외국인 학부모의 특성도 고려한다면 자료 활용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문화적응과 관련한 예측변수들 중 매개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문화적응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스트레스원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문화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처자원이 충분한지가 관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개인적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이런 개인적 특성이 사회적 지지 자원이나 인지적 대처전략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완충변인(buffer)을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예측변인들이 주로 개인적 특성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주자가 문화 스트레스에 대하여 어떤 대처기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적응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문제해결중심의 적극적 대처기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정서 의존적 소극적 대처기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결과와(Lazarus & Folkman 1984), 정서 의존적 수동적 대처기제

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는 결과(Ward, Leong & Kennedy, 1998)가 혼재하기 때문에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의 경우는 어떠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적응유형의 측정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 잠재프로파일 분류 결과를 보면 너무 쉽거나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이 있어서 잠재계층 분류에 별 기여를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번 문항인 ‘나는 집에 있을 때 한국말을 사용한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문항으로 동화 적응유형을 측정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같은 방식으로 14번 문항인 ‘내가 듣는 대부분의 음악은 모국음악이다.’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이 문항이 분리 적응유형을 측정하는 문항으로서 기능이 떨어진다. 한 가지 개선책으로 Rasch 모형을 적용하면 이러한 측정적 문제를 쉽게 개선할 수 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유형의 척도에 Rasch 모형과 같은 문항반응모형을 적용하여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문항은 제거하고 중복되는 문항을 줄여, 대규모 추적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복순·차보현. 2006. “농촌지역 코시안 가정주부의 의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 《한국사회복지학》 58(3): 109-134.
- 교육부. 2015.3.17. 2015년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계획 발표.
URL: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9&lev=0&statusYN=C&s=moe&m=02&opType=N&boardSeq=58722>
- 김민경·김경은.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0(5): 119-135.
- 김은경·김종남. 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다문화교육연구》 9(4): 21-43.
- 김현실. 2012. “결혼 이주 여성의 문화변용, 문화 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32: 39-70.
- 김희경. 2010.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유형분석.” 《여성연구》 78(1):

119-158.

노경란·방희정 2009. “다문화시대 한국 초등학생의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발달과 태도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5(1): 49-79.

노하나. 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문경희.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정치학회보》 16(3): 67-93.

박종철·김영운·이우영. 199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97-18.

박찬옥·이은경. 2011.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변용과 자녀교육관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회지》 15(6): 433-358.

심우엽. 2009. “다문화 학생의 민족정체성 및 정서적 특성.” 《초등교육연구》 22(4): 27-47.

안준희·조정희. 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2: 137-176.

여성가족부. 2017.4.21.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13~'17)에 따른 2017년도 시행 계획. 제14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URL: <https://www.kihasa.re.kr/web/news/report/view.do?menuId=30&bid=3&ano=11327>

오만석. 2011.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현실과 과제: 여섯 가정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4(1): 43-77.

오혜정. 2015.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7(1): 215-237.

이상균·박현선·노연희·이채원. 2012.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변용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복지학》 38: 235-264.

이지영. 2016.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변용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당심리교육복지》 3(1): 33-39.

이지영·이주연. 201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아동복지연구》 10(2): 83-101.

이현주·강현아. 2011.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문화정체감과 문화적응유형 및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32(4): 147-166.

- 임은미·정성진·이수진. 2010.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상담학연구》 11(3): 957-973.
- 정명희. 2011.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 스트레스 발생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국제지역연구》 15(2): 451-481.
- 조현상. 2013. “국가의 ‘다문화가족 만들기’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4: 127-152.
- 최윤미·임성택.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5(2): 15-26.
- 최혜지. 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163-194.
- 최혜지. 2012.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가 문화변용에 미치는 영향.” 《사회보장연구》 28(1): 217-24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4.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제 1-5차 조사 데이터 유저 가이드.”
- 한인영. 2001.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 78-94.
- 행정자치부. 2016.11.14. 2015. 11. 1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URL: http://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56693
- Asparouhov, T. and B. Muthen. 2013.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3-step Approaches Using Mplus(pp.1-48). Los Angeles, CA: Muthen & Muthen. Retrieved from <http://www.statmodel.com/examples/webnotes/webnote15.pdf>
- Barry, D.T.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4): 193-197.
- Berry, J.W. 1976. *Human Ecology and Cognitive Style: Comparative Studies in Cultura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New York, NY: Sage Publications.
- Berry, J.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Berry, J.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697-712.
- Berry, J.W., J.S. Phinney, D.L. Sam, and P. Vedder. 2006. "Immigrant Youth: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55(3): 303-332.
- Bergman, L.R. and D. Magnusson. 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2): 291-319.
- Bronfenbrenner, U. 1994. *Ecolog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Vol. 3(2nd Ed). Oxford: Elsevier.
- Cuellar, I., B. Arnold, and R. Maldonado. 1995. "Acculturation Rating Scale for Mexican Americans-II: A Revision of the Original ARSMA Scale."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7(3): 275-304.
- Flannery, W.P., S.P. Reise, and J. Yu. 2001. "An Empirical Comparison of Acculturation Mode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8): 1035-1045.
- Jedidi, K., H.S. Jagpal, and W.S. DeSarbo. 1997. Finite-mixture Structural Equation Models for Response-based Segmentation and Unobserved Heterogeneity. *Marketing Science* 16(1): 39-59.
- Johnston, C. and E.J. Mash.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Kline, R.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 Lazarus, R.S., and S. Folkman.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o, Y., N.R. Mendell, and D.B. Rubin.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 Marin, G. and R.J. Gamba. 1996. "A New Measurement of Acculturation for Hispanics: The Bidimensional Acculturation Scale for Hispanics (BA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8(3): 297-316.
- McLachlan, G.J. and D. Peel. 2000. *Finite Mixture Models, Volume 299 of Probability and Statistics-Applied Probability and Statistics Section*.
- Miranda, A.O. and K.B. Matheny. 2000. "Socio-psychological Predictors of

- Acculturative Stress among Latino Adult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2(4): 306-317.
- Muthén, L.K. and B.O. Muthén. 1998-2015. *Mplus User's Guide*. (7th Edition).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Nylund-Gibson, K., R. Grimm, M. Quirk, and M. Furlong. 2014. “A Latent Transition Mixture Model Using the Three-step Specific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439-454.
- Pearlin, L.I., E.G. Menaghan, M.A.Lieberman, and J.T. Mullan.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4): 337-356.
- Redfield, R., R. Linton, and M.J. Herskovits. 1936.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1): 149-15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Vol. 11, p. 326).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m, D.L. 2006. Acculturation: Conceptual Background and Core Components. In D.L. Sam and J.W. Berry(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1st ed., pp. 11-26)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m, D.L. and J.W. Berry. 1995. “Acculturative Stress and Young Immigrants in Norway.”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36(1): 10-24.
- Sandhu, D.S. and B.R. Asrabadi.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1): 435-448.
- Schwarz, G. 1978. “Estimating the Dimension of a Model.” *The Annals of Statistics* 6(2): 461-464.
- Tartakovsky, E. 2007. “A Longitudinal Study of Acculturative Stress and Homesickness: High-school Adolescents Immigrating from Russia and Ukraine to Israel without Parent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2(6): 485-494.
- Vermunt, J.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 450-469
- Ward, C., C.H. Leong, and A. Kennedy. 1998, April. “Self Construals,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 In Annual

Conference of the Society of Australian Social Psychologists, Christchurch, New Zealand.

Williams, C.L. and J.W. Berry. 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Refugees: Application of Psychologic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46(6): 632.

<접수 2019/02/28, 수정 2019/05/24, 게재확정 2019/06/14>